

= 특별과제 =

1과학자 1마을 기술결연

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고 광 출 교수

1. 새마을운동은 애국애족의 실천운동

1970년 4월 22일 박대통령께서 조국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족의 일대 약진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시었다.

자조, 근면, 협동을 기조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도시, 개인과 공동, 국민과 국가, 어느분야나 계층을 막론하고 임무와 목적을 수행하는데 정신적인 원동력이요, 잘살기 위한 실천운동이요, 애국애족의 실천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조국근대화과정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의 과학기술인은 조국의 근대화작업에 좌시할 수 없어 72년 4월 21일 제5회 과학의 날 기념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에 자진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창설하여 그동안 과학기술보급에 힘써왔다.

특히 1과학자 1마을 기술결연사업을 실시하여 회원자자는 낙후한 농어촌을 찾아가서 과학기술을 보급시키는데 참여하여 왔다.

2. 과학기술보급 위한 기술결연

1975년도에서 76년도에 걸쳐 200명의 과학기술자가 각각 한 마을씩 낙후부락과 기술결연을 맺고 현지에 출장하면서 지난 6월말 현재 1,789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연인원 29,543명과 대화하여 과학기술을 보급시켰다.

지도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농어촌의 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농

경지정리, 농르확장 및 교량가설, 상하수도설치 등의 제공사를 도와 기술자문과 현지지도를 하였으며, 식량증산을 위해 품종해설은 물론 신품종의 도입보급, 적정시비와 병충해방제기술을 가르쳐 왔다. 또한 경제작물재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특용작물의 재배법, 시설을 이용한 채소재배법을 지도하여 대단위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하므로써 과학영농의 유리함을 실증하기도 하였으며 조기다수확을 위한 왜성사과과수원을 설치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

초지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초종선택과 비배 및 수확 관리법을 지도하였으며 질병으로부터 죽어가는 가축들을 치료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대량 가축을 구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영세농가들의 높지않은 교육수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 좁처럼 자극받지 못한 배타적인 보수성 등으로 침체된 농어민의 정신 자세를 제도하여 조직화시키고 협동생활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연고지로 현지출장하면서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농기술을 보급하기도 하고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과학기술결연자들은 모름지기 조국근대화 대열에 앞장선 기수요, 새마을지도자로서 역할이 다져져 가고 있다.

200여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결연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수이거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자들이다. 행정공무원의 처지와는 달리 이들 교직자들은 직접적인 활동성이 결여되고 있거나 자고의식이 높은 계층이기도 하면서 결연부락의 사업추진과

문제점 해결에 행정력 동원과 자결능력이 부족하다.

부락민들로부터 환심을 얻고 신임을 받기에는 어느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주어야 함에도 결정적인 역할에 미치지 못하므로 안타까운 일도 많으며 인정감마저 얻기 힘들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연자들로 하여금 실의마저 야기시킬 때도 허다하다.

낙후한 농어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결정적인 소임을 다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에 쫓기고 경제 능력이 미흡하다. 잘 훈련되거나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체나 공장등이 부분적인 기술이 부진할 때 과학적인 기술지원을 생산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농어촌사업은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들을 단편적인 과학기술 지도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 불만 질러 주는 도화선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한 인화물이나 연료가 부족하여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과가 뚜렷하지 못하거나 보람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면 누구나 곧 의욕을 잃게 마련이다.

3. 노화, 부녀화 되어가는

과학기술 수용층

결연마을의 공통된 문제들은 비슷하다. 대부분의 농어민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과학기술의 수용층은 노화 또는 부녀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다 능동적이며 민감한 청년층은 거의 타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도에 대한 반응이나 실제적 행동화에는 때로 자재와 기기가 준비되어야 함에도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

농어촌 문제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복합문제가 교잡되어 있다. 그러기에 농어촌 문제의 해결은 연속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구두선으로만 언급되어서는 불가하다. 반드시 직접적이며, 전시적이며, 반복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1과학자 1마을기술결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회와 도단의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전기한 제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본사업을 추진

함에 행정적, 재정적 측면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중앙회나 도단의 조직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재정적으로 빈약할 뿐아니라 아무런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중앙회나 도단이라면 개별적인 참여의욕에 의하여 자진활동하는 결연과학자들을 통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

중앙회나 도단은 현지에서 뛰고 있는 과학자들을 최대로 이해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없이는 보다 유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지출장지도에 필요한 실비는 지원 못할 망정 교통비 마저 충분하게 지원 못하는 처지에 월별 활동보고서만 요구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에게는 오직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결연자들은 강력하고 기동적이며 충분히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앙회나 도단의 역할과 조직을 바라고 있다.

결연마을 어디를 가나 새마을 기술봉사단에 대한 인식은 매우 호의적이다. 새마을기술봉사단이란 이름내용이 뜻하듯이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된 과학기술결연자들의 자기희생적인 봉사애에 농어민들의 지대한 환심과 기대가 크다.

농어민들의 의식속에는 아직도 과거부터 잠재해 내려오는 피해망상의 고질을 못버리고 있다. 새마을 기술봉사단이야 말로 농어민들에게 부담감이나 의무감 그리고 강압감을 주지 않고 일방적인 봉사활동을 하여 주니 농어민들의 호감을 갖기 마련이다. 초기에는 다소 회의적이었으나 피해를 주지 않고 새마을사업에 직접간접으로 공헌하여 주는 과학기술자들과 이제는 밀접한 동료가 되었으며 새마을 지도자로 믿어주고 있다.

1과학자 1마을기술결연사업의 추진방향은 결연자의 자세, 당국의 이해와 지원, 해당 마을의 집중지원이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는 할일 없는 무식자가 아니고 모두가 교직자 아니면 연구소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소임완수에도 겨를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 직업인들이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에 의하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여명의 결연자들은 개인의 명리나 보상을 바라고 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새마을사업이 과학자의 입신양명을 위한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모름직이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기술적으로 후한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부락을 근대화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물질양면의 희생을 각오하여야 한다. 직장 일에서도 타인에게 미하여 우월하게 공을 세워야 하면서 새마을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나가야 할 중임을 깨고 있다.

5. 자산, 지식, 조국근대화에 바쳐야

기업가가 자산을 모아 치부하였다면 그 여력을 국가사회를 위해 바쳐야 함이 바람직하고 지식인이 무형의 자산인 과학기술을 익혔다면 이를 조국근대화를 위해 경주하여야 한다.

누가 보고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아도 우리의 노력이 진효하여 결연마을이 궁극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눈에 띄게 일진월보 성장하여 갈때 우리결연자들의 참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결연자들의 사업추진은 하나의 신앙적 집념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조국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도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하루 속히 기어히 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려면 모든 국력은 총화로 단결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물론 한 사람의 지식인, 한사람의 과학기술인들이 더욱더 참여하여야 할 처지이다. 당국이 벌리고 있는 근대화작업이 행정력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참여의식이 결여되기 쉽고 개인주의적인 지식계층이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로 새마을운동의 대열에 설때 당국은 이들을 적극활용하여 조국근대화작업을 앞당겨 이루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비단 결연자마을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은 값진 것이기에 다른 지식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본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대육성 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기술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지식인들은 때로 오해와 주시속에 고독할 때도 많다

직장에서의 이해 부족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을 얻지 못할 경우, 초라한 자력활동만으로는 때로 모처럼 갖어본 봉사정신도 냉각되기 쉽다.

6. 결 언

과학기술결연자의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직장에서의 충분한 이해가 고려됨으로써 사기진작에 원동력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결연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수행되어질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국의 우선적인 재정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증양회나 도단에서는 이러한 현지의 사정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결연자는 결코 단능일 수 없다. 자기전문외의 사업적 성질이 재재되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해당기술진의 교류와 후원사업이 원활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의견청취와 토의를 가질 기회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연마을이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으나 실효가 없이 명목상에 그치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없다. 사업의 성공은 지도자의 열성과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기회 맺어진 부락만이라도 집중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 시 군의 사업으로 채택되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모범적인 부락으로 이루어질 때 값진 과학기술인의 봉사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필자의 결연마을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이룩되어야 한다.

1. 농경지정리 : 10ha
2. 비닐하우스건립 : 2ha
3.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 : 20개소
4. 시범과수원조성 : 1ha
5. 도시계획에 설정된 도로의 조기개통:2km
6. 농가시범주택건설 : 10동
7. 마을회관신축 : 180m²